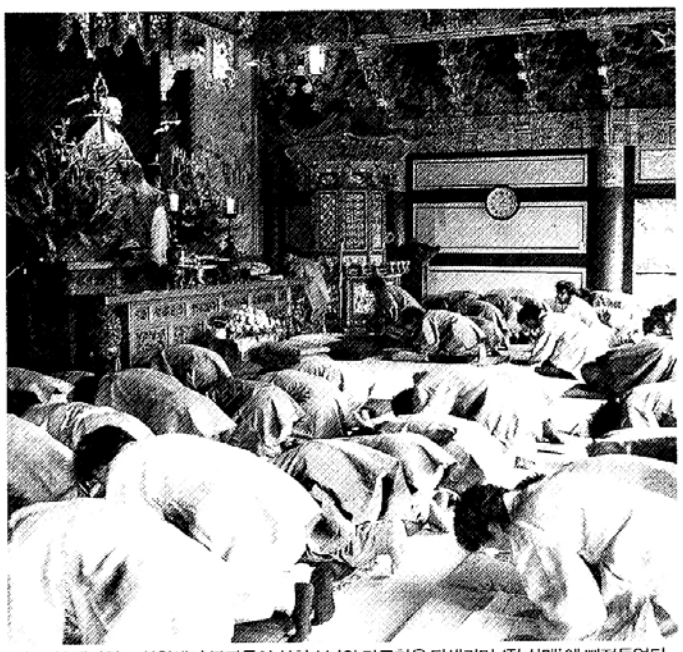
바라밀현장

백련암 7일7야 기도현장

성철 큰스님(조계종 종정 역임)이 우리 곁을 떠난지 아홉해가 지났지만, 매년 전국 각지에서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백련암을 찾는 신도들은 늘어만 간다. 성철스님 열반 9주기를 맞아 스님의 주석처였던 백련암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큰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란 주제의 7일7야 참회기도법회가 열렸다.

18일 아침 6시, 버스에서 내린 50여 보살들은 걸음을 재촉해 곧장 해인사 백련암으로 향했다. 60~70대는 족히 되어 보이는 노보살들의 발걸음이 매우 가벼워 뒤따르자니 숨이 차오를 정도다. 백련암 마당에는 정갈한 회색빛 법복으로 갈아입은 10여명의 거사와 보살들이 이미 간단한 선체조나 차담을 나누고 있었고, 고심원 법당에서는 염불과 죽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18일 백련암 고심원에서 불자들이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절 삼매'에 빠져들었다.

3천여불자 8만4천배 정진

초등생서 70대 노보살까지 면면다양

절하다보면 하심·인내심 저절로 생겨

18일 오전 7시에 입재한 법회는 7일 낮 7일 밤 동안 연인원 3천여명의 불자들이 쉬지 않고 8만4천배를 올리는 참회기도로 진행됐다. 참석한 사람들은 초등학생부터, 70대 노보살에 이르기까지 면면도 다양했다. 백련암 고심원에서 절을 하고 있는 신도들은 무아경에 빠져 일배 일배 올리는 동안 비오듯 땀을 쏟아냈지만 얼굴엔 환희심으로 가득했다.

왜 절을 하느냐는 질문에 백련암 신도회장 천진성(71 · 부산 거제동) 보살은 대뜸 3천배 해 보았느냐고 되물었다. 아무리 달고 맛있는 과일이 있어도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리라.

1천배는 여러번 해 봤다는 대답에 잠시 후, "절을 하다보면 저절로 하심이 생겨 미물조차 함부로 보이지 않게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 '나' 라는 아상을 가지고는 일체중생을 위하는 수행정진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먼저 하심을 일깨우기 위해' 절을 시킨 큰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매년 참회기도 법회를 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천배를 처음 해본다는 김보광(29 · 부산 부산진구) 거사는 "절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 부처님이니 자비니 하는 말보다 지옥의 고통이 먼저 떠올랐다. 그러나 절을 자꾸 하다보니 저절로 하심과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며 내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말했다.

3대의 한 가족이 참회기도에 참석한 보현화(69 · 대구 수성구) 보살은 아들 내외, 초등학교 2 · 4학년의 두 손자와 함께 2시간여 동안 1천배 정진을 했다. 보현화 보살은 "아범이 작은 손자 나이 적에 처음 큰스님을 뵙고 3천배를 했었는데, 30여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손자들이 함께 백련암을 찾아 절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3대에 걸친 3천배의 인연을 떠올린다.

이번 참회기도는 7일간 2시간마다 1천배씩 8만 4천배를 진행해 25일 성철스님 사리탑에서 3천배를 하는 것으로 회향됐다.

백련암=박원구 기자

성철스님 법문에 큰 감명 그날로 신도…30여년 흘러

정혜사 신도회장 자비심 보살

"백련암에 가면 서예작품과 불명, 화두를 준다고 해서 도반을 따라갔다가 엉겁결에 3천배를 하고 접한 큰스님의 법문이 너무 감명깊어 그날로 백련암 신도가 됐는데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자비심(70. 대구 평리동) 보살은 성철스님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30년을 한결같이 3000배와 아비라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자비심 보살은 성철 큰스님의 기일이 다가올 때 마다 가슴이 저며온다. 좀 더 젊은 나이에 스님을 친견했더라면 더 많은 정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항상 일체중생을 위해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스님의 유훈을 지키기 위해 8년전 인연닿는 보살들을 모아 대구에 정혜사라는 수행도량을 세워 참회정진을 해오고 있는 자비심보살은 정혜사 신도회장을 맡아 도반들의 정진을 이끌고 있다.

매일 정혜사에 들러 장궤합장을 한 채 '옴아비라 훔 캄 스바하' 하는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외우는 아비라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자비심 보살. 성철 스님이 처음 준 '삼 서근(麻三斤)' 화두를 가슴에 품고 참회기도와 3천배를 하다보니 부처님의 크신 자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한다.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0월-참회의 달

- 참회는 신행의 좌표
- 포살법회 되살리자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 참회의 방편
- 일상에서의 참회

일상에서의 참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나" 자기 점검

'善 철저이행' 중선봉행 발원 담겨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이 간단한 질문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일원이기도 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좋은 아빠였는지', '직분에 충실했는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지' 등 일상의 언행에서부터 마음가짐까지 모두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기 점검은 끊임없이 참나로 향하는 마음이 될 때라야 가능하다.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불법공부의 첫출발이 되는 이유이다. "절에 다니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나를 관찰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는 회사원 박소영(34 · 부산 남천동)씨의 말처럼 일상의 참회는 자기 관찰에서 시작된다.

박씨의 자기 변화는 '회사에 출근하면 직장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기' 로부터 시작됐다. 동료의 태도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먼저 살피다 보니, 행동 하나하나와 마음가짐이 달라져 대인관계도 원만해졌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가정이나 신행에까지 이어져,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 점검의 방편이 되는 참회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 는식의 억지 다짐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인정하며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다. 철저히 모든 선을 행하겠다는 '중선봉행(衆善奉行)'의 발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참회는 나를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모든 문제들까지 확장된다. 원인을 자신에서 찾으려는 환경운동,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닌 마음에서 행하는 복지불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부산 미룡사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장인 장일선 회장은 양희라는 심장병 어린이의 치료비와 약값 몇 백만원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참회를 생활화 한다.

◇'남의 잘못을 대신 참회하고 그 고통을 나누겠다' 는 장일선(가운데) 보살은 성우원 장애인들을 위해 간식 후원은 물론 함께 놀아주며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

"6살된 어린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니, 그 아이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장회장은 "내 한 몸 편하다고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땐 참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것이 강 회장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든 생명체를 대신해 참회를 발원하게 된 동기이다. 인도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죄를 지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나 잘못까지 모두 참회하겠다는 철저한 보살심이 발현한 것이다. 마산결핵요양원, 성우원, 구치소, 인도결핵환자 돕기 등으로 분주한 장 회장의 일상은 진정한 참회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 일상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천미희 기자

心 마음비추기

무조건 사랑은 못된 습성 키울 수도…

수행처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어디서 개 한 마리가 들어와 키우게 되었다. 영리한 애완견과 토종견의 피가 섞였는지 하는 짓이 반반이다. 음식을 함부로 먹고 아무데서나 일을 보고 지저분한 곳을 드나드는 것을 보면 흔한 말로 영락없는 똥개이고, 생김새나 사람에게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보면 방안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다. 그래도 불쌍한 마음에 목걸이도 채우지 않고, 구하기 어려운 뼈다귀까지 얻어다 먹이면서 무척 귀엽게 키웠다.

그런데 이놈 하는 짓이 일견 사랑스러우면서도 미운 것은 하루 종일 주인인 내 마음에만 관심을 둔다는 데 있다.

새벽부터 문가에 앉아 내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주치면 쓰다듬어 달라고 머리를 내밀기도 하고 벌렁 누워 배를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이리 가면 이리 쫓아오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오고 앉아있으면 으레 옆에 와서 비비적댄다.

밤중에 방 안에서 보면 제 집은 그만 두고 창문으로 녀석의 그림자가 방 쪽을 향해 있다. 온종일 애정결핍증에 걸린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예뻐해 주기만을 바란다.

개의 이런 습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나중엔 성가시다 못해 밉살스럽기도 하여, 야단을 치거나 나무라면 이내 삐져서 쪼그리고 앉아 눈치를 보며 청승을 떨었다.

나중에는 이런 개의 모습이 권태롭고 짜증이 나서 아예 본체만체 밥만 주고 말았더니 급기야는 일을 저질렀다. 찾아온 손님이 이런 곳에 개가 있다고 하면서 가까이 가자 다리를 물어뜯은 것이다. 짐작컨대 저에게 보인 무관심에 불만을 품고 평소 안하던 짓을 한 것이 분명했다.

참으로 이대로 두면 개꼴도 사람꼴도 안 되겠다 싶어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부처님은 생명에게 매질을 하지 말라 하셨지만 목걸이를 사다 묶어놓고 막대기로 적지 않게 때렸다. 그리고 밥을 줄 때마다 꾸중을 하면서 못된 습성을 꺾게 했다.

이젠 주인인 내 마음엔 기댈 곳이 없음을 깨달았는지 밥을 주면 꼬리나 흔들고 조용하게 지낸다. 사람들 성격도 다양하지만 짐승들 성격도 다양하다. 같은 개인데도 진돗개나 셰퍼드 같은 명견은 주인이 결정되면 그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다. 주인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고 제 할일 하면서 굳건히 주인을 지켜준다. 비유를 개에다 해서 뭣하지만 사람 중에도 애완견과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사랑과 관심을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받은 것을 남들에게 베풀려 하지 않고 더더욱 달라고만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과 양보와 배려가 필요치 않다. 자신의 못된 습성만 더욱 키워주는 꼴이 되고 스스로는 물론 남들까지도 죄를 짓게 한다. 무리가 가더라도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 못된 습성을 꺾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역화보살이 행하는 자비일 수 있다.

寂然

지도자여! 무소의 뿔처럼 쉼없이 포교하자!

동심으로의 여행 오세암

제34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 애니메이션 '오세암' 시사회와 함께 합니다. -

행사개요

일 시 : 불기 2546년 11월 16일(토) 오후3시 ~ 11월 17일(일), 오후3시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소재)

연수참가비 : ※해외거주자는 무료

구 분	기본과정	과 정 레크리에이션	비 고
미리 접수	45,000원	55,000원	레크리에이션 자격검정비 30,000원 참가비와 별도
당일 접수	50,000원	60,000원	
제주도, 울릉도, 군종병	30,000원	40,000원	

지급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달력)

접수 방법

가. 접수
(1) 홈페이지 - www.dongja.org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 클릭하여 접수
(2) FAX :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접수 (051)808-4571
(3) 연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받고자 합니다.
▶ 본회 사무국 (051)808-4570

나. 참가비 납부
(1) 접수 후 입금
(2)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연락바랍니다.
(3) 송금계좌 : 우체국 601310-01-002215 [예금주 : 대불어]

다. 접수마감
- 신청서 및 참가비 마감 : 11월 11일 까지
(기한내 참가비 미납 시 당일 접수 참가비를 내야 함.)

일정표

과정	내용	강사	약력
기본과정	어린이를 위한 부처님 말씀- 사성제	인경스님	보조사상연구원 실상선상담연구원 원장
기본과정	어린이의 신행활동 지도 및 평가	성일스님	신흥사주지 저서)어린이불교학교지침서 등
기본과정	겨울불교학교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법명스님	향림사주지청소년지도사 1급
기본과정	모둠별 토의 - 겨울불교학교 프로그램 기획		
기본과정	모둠별 토의 결과 발표		
기본과정	만화영화 '오세암' 시사회	(주)마고21	
기본과정	경전상에 나타난 동화의 소재	강 성 희	신당1동 어린이집원장, 숙명여대, 동국대 강사
기본과정	찬불가와 율동	정 유 탁	풍경소리
레크리에이션 과정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법당놀이	(사)한국여가교육협회	
레크리에이션 과정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야외놀이	(사)한국여가교육협회	
레크리에이션 과정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전래놀이	법명스님	향림사주지 청소년지도사 1급
레크리에이션 과정	레크리에이션 2급 자격검정	(사)한국여가교육협회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dongja.org

·총재/정관 ·부총재/혜총, 철오 ·회장/정여 ·상임부회장/운성 ·부회장/각만, 덕신, 덕진, 원행, 원혜, 인성, 지광, 지현(가나다순) ·감사/성형, 박창식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에서 계미년 "연꽃동자" 달력을 보급합니다.

문의 및 주문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051)808-4570

부다가야 (051)865-4383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333-2 · 팩스(051)865-4821

http://www.buddhagaya.co.kr

온라인 우 체 국 ▶ 600353-02-035836
부산은행 ▶ 040-13-000388-2 (예금주 : 김주환)
※ 사찰명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